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2

▶ 63회 예고
아쇼까가 왕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칼라따까는 옛 카시국 부왕에 임명된다. 아쇼까는 칼라따까를 위해 환송연을 베푼다. 수시마 편에 섰던 왕자들이 환송연에 참석했다가 친위대 군사들에게 살해당한다. 아쇼까의 공포정치는 계속된다.



아쇼까, 마우리아국 왕이 되다

수시마 부왕비가 피신한 곳은 강가강 하류의 달리뜨(불가촉천민)들이 사는 천민촌이었다. 달리뜨들은 외성 밖에서 거주하는 천민들이었다. 달리뜨들은 염소 등을 도살하거나, 성민들의 빨래와 이발을 해주거나, 강가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겨우 연명했다. 그들은 대부분 강가 동굴이나 엉성한 움막에서 살았다.

수시마 부왕비는 아들 니그로다를 안고 하염없이 흐느꼈다. 하루아침에 강가강이 내려다보이는 별궁에서 시궁창 악취가 풍겨오는 움막으로 이유도 모른 채 옮겨왔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움막 주인 도비왈라는 친위대 군사들의 빨래를 대물림으로 해왔던 천민이었고 불교 신자였다. 석양이 기울 무렵에 또 다시 찾아온 친위대장은 도비왈라를 믿고 말했다.

"부왕비님을 잘 모셔야 하네. 부왕비님과 니그로다 왕세자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비밀이어야 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오갈 데 없는 친척이 와서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부왕비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예. 우리 마을을 자주 찾는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이 계십니다."

달리뜨 마을에서는 수행승 중에서도 덕이 높은 사문을 아라한이라고 불렀다. 마하바루나는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로 천민촌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는 사문이었다.

"잘 됐네. 장차 니그로다 왕세자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겠네."

친위대장은 안심이 되자, 곧 도비왈라 움막을 나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도비왈라를 찾았다.

"대장님, 제게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왕비님을 뵙고 가야겠네."

"예, 모시고 오겠습니다."

도비왈라 움막 마당은 제법 넓었다. 빨랫줄에 빨래들이 가득했고, 땅바닥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수시마 부왕비가 든 움막은 도비왈라의 띳집 뒤에 있어 오가는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수시마 부왕비가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나왔다. 그러자 도비왈라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 주었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의 퉁퉁 부은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다.

"부왕비님,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그로다 왕세자님을 위해서도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장님은 괜찮습니까?"

"세상이 바뀌어 저도 제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도비왈라 움막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왕비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도비왈라는 부왕비님을 충직하게 잘 모실 것입니다.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장님, 자주 오세요. 저는 무섭고 외로워요."

"저는 이곳에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왕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왕궁에 안 계시니 제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니그로다 왕세자님만이 마우리아왕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잘 키우셔야 합니다."

수시마 부왕비가 또 눈물을 흘렸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가 측은해서 차마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했다. 도비왈라를 부르지 않고 바로 말을 탔다. 친위대장이 말에 올라타고 달리자 흙먼지가 일어났다. 땅바닥에 널어놓은 빨래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썼다.

열흘 후.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한밤중인데도 종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려 퍼졌다. 북소리도 밤새 둥둥둥 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전쟁이 발발했거나 나라의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종소리와 북소리였다. 칼라따까는 직감했다.

'아, 대왕님께서 운명하셨구나!'

라다굽따도 마찬가지였다. 몇 년 동안 지병을 앓으시더니 이제야 다른 세상으로 가셨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내성 문과 외성 문들이 수문장의 지시로 열렸다. 라다굽따는 안개 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에 흐릿한 그림자들이 보였다. 벌써 성 안팎의 사람들이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관복을 입고 왕궁으로 달리듯 걸었다. 장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 말을 타지 않았다.

친위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친위대 조장이 바삐 움직였다. 친위대 조장의 지시로 군사들이 왕궁 안의 침전을 몇 겹으로 에워싼 채 비상경계를 섰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친위대 조장의 안내를 받아 바로 빈두사라왕의 침실로 갔다. 미리 와 있던 아쇼까가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가셨소."

아쇼까의 표정은 침통했지만 말투는 담담했다. 왕궁 정전에 있다가 우두머리 궁중의원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침전으로 달려와 빈두사라왕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아쇼까였다. 임종을 지켰다는 것은 상징성이 컸다. 유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빈두사라왕의 마지막 왕명이었다. 칼라따까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왕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요?"

"마우리아왕국 백성들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소."

칼라따까는 아쉬웠다. '백성들을 부탁한다'는 왕명은 애매했다. 왕위를 물려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석하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었다. 당장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조문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정해야 했다. 칼라따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명쾌하게 내놓았다.

"짠드라굽따 선왕님의 예를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수상께서 장례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시오. 조문 순서는 왕실부터 받고 장례는 닷새 동안 치르시오."

짠드라굽따 대왕의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길게 끌지 않고 닷새 만에 서둘러 끝냈다. 자이나교 수행자의 경우처럼 단순하고 소박했다. 실제로 짠드라굽따 대왕이 왕위를 아들 빈두사라에게 물려주고 자이나교에 귀의하여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죽은 백성을 위해 자신도 단식하다가 죽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전단향나무를 쌓아놓고 아버지 짠드라굽따의 시신을 불태웠는데 석양이 지는 동안 타다만 뼈와 재를 강에 뿌렸던바, 아쇼까도 선왕의 선례를 떠올리면서 칼라따까와 라다굽따에게 명했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의 장례를 진두지휘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었다. 빈두사라왕의 장례기간에 호칭도 부왕에서 왕으로 바뀌었다. 아쇼까가 집무를 보는 정궁에서 칼라따까가 먼저 나서서 충성을 서약했다.

"왕이시여, 저희들은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고맙소, 나는 그대들을 믿고 선왕께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것이오."

"왕이시여,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다굽따의 말에 아쇼까가 마우리아왕국의 비원을 말했다.

"나는 잠부띠바를 통일할 것이오. 선왕께서 이루지 못한 깔링가국부터 정복할 것이오."

아쇼까는 전쟁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선왕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해결하고 싶다는 아쇼까의 욕망이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깔링가국은 짠드라굽따도, 빈두사라도 정복하지 못한 작은 소국이었다. 강력한 코끼리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강국인데다 해상무역으로 부자가 많아 왕국의 재정도 늘 넉넉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여 남녀차별이나 신분계급의식이 희박해 나라의 분위기가 다른 소국들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가 왕정을 펴는 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왕권이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았는데 정복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었다. 수시마 부왕을 지지했던 왕자들이 아직도 수십 명이나 왕궁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친위대장인 것이었다. 아쇼까가 친위대장을 찾았다.

"대장은 어디 있소?"

"오늘 새벽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장이 보이지 않다니 이상하오."

"친위대 조장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소신이 친위대 조장을 불러 오겠습니다."

칼라따까가 친위대 조장을 부르러 간 사이에 라다굽따가 말했다.

"왕이시여, 지금은 장례기간일뿐더러 수시마 부왕님 편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왕권을 반석처럼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당장에 정복전쟁을 치르자는 말은 아니었소. 어떻게 왕궁을 함부로 비울 수 있겠소. 수시마 형님을 옹립하려던 왕자들이 있는데."

친위대 조장이 들어오자, 아쇼까는 즉시 그를 친위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장이 세운 공을 수상에게서 다 들었소. 대장은 마우리아왕국을 위해 활약한 공이 크오."

"왕이시여, 소장은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대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호위하시오."

"왕이시여,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석양빛이 내성 안을 뒷걸음치듯 물러갈 때였다. 새벽부터 보이지 않던 친위대장의 시신이 내성 끝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순찰을 돌던 군사가 발견하여 경비대장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는 곧 칼라따까 수상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의 자살 소식을 빈두사라왕 시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라다굽따를 찾아가 알렸다.

"제관님, 대장이 목을 매어 죽었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자살한 것 같소."

친위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은 금세 성 안에 퍼졌다. 다음번에 죽게 될 사람은 어느 왕자일 것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까지 떠돌았다. 소문은 정확했다. 빈두사라왕의 화장이 끝난 날 수시마를 적극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군사가 나선 전광석화 같은 작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빠딸리뿌뜨라 성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공포의 살기가 감돌았다.

마침내 아쇼까왕은 대왕만이 쓸 수 있는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모자를 썼다. 아쇼까왕은 옆구리에 동생 비가따쇼까가 선물한 단검을 차고 정궁으로 나아갔다. 대신들이 정궁에 모이자, 아쇼까는 새로운 수상 임명식을 가졌다.

"라다굽따 제관을 수상으로 임명하오!"

예상과 달리 성품이 온화한 라다굽따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순간 비범한 책략가 칼라따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칼라따까를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를 위해 헌신했던 칼라따까 수상을 누구나 한 번 가기를 원하는 옛 까시국 부왕으로 임명하오!"

외침의 염려가 전혀 없는 데다 강가강이 활처럼 휘감아 흐르고, 색색의 비단과 진기한 교역물이 넘쳐나는 옛 까시국 부왕으로 칼라따까를 지명했다. 칼라따까의 남은 여생을 편히 보장하겠다는 배려였다.〈계속〉



간화선 실참의 터전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